

S#1. 낮선 방 (밤)

칠흑 같이 어두운 밤. 불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방 바닥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.

남성: (신음을 내뿜는다) 으으...

꿈틀거리던 남성, 의식을 되찾은 듯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다.

남성: (주변을 살펴보며) 여긴... 어디지? 나는... 왜 이런 곳에...? 으... 머리가 아파... (머리를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한다)

남성, 이내 생각을 포기한 듯 창 밖을 멍하니 쳐다본다. (창 밖 화면을 조명) 창 밖 하늘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떠 있다.

남성: (창 밖을 뚫어져라 쳐다보며) ... 아름답다.

뚫어져라 창문을 바라보던 남성. 뒤에서 들린 커다란 소리에 놀라 뒤를 바라본다.

남성: (소스라치게 놀라며) 으악, 깜짝이야. 대체 뭐야, 이 문은!

남성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한다. (클로즈업) 문이 밝게 빛나고 있다.

남성, 경계하듯 문으로 다가가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린다.

남성: (조용히 중얼거리며) ... 이 문은 어디서 갑자기 생긴거지? (문고리를 잡고 돌리며) 열리지 않아.

한숨을 쉬며 고개를 치켜드는 남성. 남성의 눈에 문에 걸린 팻말이 보인다.

남성: (팻말을 뚫어져라 바라보며) 이건...? (팻말 속 글씨에 클로즈업)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이 방에서 나가라고...?

남성,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방을 둘러본다. 남성의 눈길이 책상으로 향한다.

남성: (책상 앞으로 걸어가며) 책상...? (책상 위를 뒤적거리며) 책이 어지럽게 놓여있군...

책상을 살펴보던 남성. 다음으로 장롱 앞으로 걸어간다. 장롱의 문 끝에 기다란 끈이 걸려 있다.

남성: (손으로 끈을 잡아당기며) ...이건 뭐지? 흠! (놀란 표정으로) 이건... 손전등이잖아!

남성, 손전등을 오른손으로 든 채 스위치를 켜다. 손전등의 환한 불빛이 방을 밝힌다.

남성: (안도한 듯 한숨을 쉬며) 후... 다행이군. 이제야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어.

남성, 손전등으로 방 이곳 저곳을 밝혀본다. 손전등의 불빛이 침대 위에서 멈춘다.

남성: (의아한 표정으로) 여기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...? 수상한데?

침대를 뒤지기 시작하는 남성. 이윽고 침대 위에서 액자를 발견한다. (액자 속 사진에 클로즈업) 액자 속에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담겨 있다.

남성, 무언가 생각에 빠진 듯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린다.

남성: 누구의 사진이지...? 방의 주인? (한숨을 쉬며) ... 모르겠군. 기억이 나는 게 없으니 참...

(중얼거리던 남성의 뒤편에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.) 남성,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 엎드린다.

엎드린 채 고개를 든 남성,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본다.

남성: (몸을 바들바들 떨며) 저...저기엔 아까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!

소리가 난 곳을 노려보던 남성. 무언가 결심한 듯, 소리가 난 책상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간다.

남성의 시야에 열려 있는 책상의 서랍이 들어온다.

(서랍 안쪽을 클로즈 업) 서랍 안쪽에 열쇠가 놓여 있다.

남성: (열쇠를 조심스럽게 집어 들며) 이 열쇠는 뭐지...? 숫자 1...?

(열쇠를 살펴보는 남성의 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.) 남성, 깜짝 놀라 제자리에 주저 앉는다.

남성: (겁에 질린 목소리로) 가...갑자기 문이 열렸어!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야...!

문은 열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. 남성, 손전등에 비친 팻말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.

남성: (심호흡을 하며) 후... 그래.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방을 나가라고 했지... (결연한 표정으로) 좋아!

남성, 책상을 잡고 일어나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문으로 다가간다.